

동해 EEZ 관련 만찬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 대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 대책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판단과 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이 어려움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작게 보면 해저 수로 탐사라는 작은 행위를 둘러싼 EEZ 경계 분쟁 수준의 문제입니다. 작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상 의미가 있습니다. 수년간 그보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취한 일련의 행위를 연결해 보면 단지 EEZ 경계 분쟁으로만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많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 등 이것들을 종합하면 그것이 일본의 국수주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미래 동북아 질서에 대한 도전적 행위가 아니냐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역사의 문제이자 미래 안보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를 어느 틀에서 볼지, 저 개인보다는 국민적 판단을 모으고 어느 선에서 대응할지 널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은 EEZ 문제이지만 기점에 관한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독도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정부의 기조는 조용한 대응을 통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조였습니다. 일본의 분쟁 지역화 의도에 말려서는 안 됩니다. 대응을 절제하는 조용한 외교를 수년간 해오는 동안 일본이 하나 둘씩 공격적으로 상황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일이지는 하지만 중앙 정부의 묵인 또는 동조 아래 독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과서 등재 행위 등으로 일본이 공세적으로 도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에 대하여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늘 논의되고 들어야 할 논점입니다.

한국의 주권과 나아가 동북아 미래 평화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지 기탄 없는 의견을 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